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 검증

이 은 주¹⁾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상호적 인과관계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두 행동문제의 종단적 발달에 작용하는 아동효과 및 부모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844명의 4년 종단자료에 대해 자기회귀 패널모델에 기반한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는 상호적 인과관계가 있었다. 측정회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재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였으며, 외현화 행동문제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였다. 일부 교차지연 경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아동효과 및 부모효과가 모두 검증되었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아동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부모효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매개효과, 부모효과, 아동효과

1) 교신저자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elee@halla.ac.kr)

I. 서론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는 각각 독특한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lienfeld, 2003). 즉 비행이나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동시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Gilliom & Shaw, 2004). 비록 많은 연구들이 두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두 행동문제 간 종단적 관계, 각 행동문제의 원인이나 발달에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Wolff & Ollendick, 2006).

일반적으로 두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인과적 방향 모델(causal direction model)과 공통위험요인 모델(common vulnerability model)로 구분된다. 인과적 방향 모델은 두 행동문제 간 인과적 방향(일방향 혹은 양방향의 인과관계)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 즉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는지, 외현화 문제가 내재화 문제를 야기하는지, 혹은 두 행동문제가 서로에 대해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외현화 문제가 내재화 문제에 선행한다는 결과(e.g., Patterson & Capaldi, 1990),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에 선행한다는 결과(e.g., Mesman, Bongers, & Koot, 2001), 또는 두 행동문제 간에 일방향보다는 양방향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e.g., Gilliom & Shaw, 2004)가 혼재하고 있어 인과적 방향에 대해 일관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찾기 어렵다.

한편 공통위험요인 모델은 두 행동문제 간에 동일한 원인적 요인(etiological factors)이 존재하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행동문제가 공동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Fergusson, Lynskey, & Horwood, 1996). 인과적 방향모델이 두 행동문제의 인과적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러한 관계에 작용하는 제 3의 변수 즉, 다양한 위험요인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비록 어느 한 영역의 행동문제는 이후 다른 영역의 행동문제의 발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행동문제의 관계의 상당 부분은 이들 행동문제 간 공통위험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다(Fergusson et al., 1996).

그런데 인과적 방향 모델과 공통위험요인 모델 중 어느 하나의 모델로 두 행동문제의 공동발달(comorbidity)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인과적 방향 모델과 공통위험요인 모델을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이은주, 2010). 즉,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간 일방향 혹은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영역의 행동문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e.g.,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또래관계 등)의 영향을 받아 두 행동문제가 공동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Fergusson et al., 1996). 따라서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의 인과적 방향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의 효과에 대해 한 모델에서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두 영역의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이론은 없지만

(Wolff & Ollendick, 2006),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예: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기질 등), 가정적 요인(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사회적 자본 등), 및 환경적 요인(또래관계 등)이 아동의 행동문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itz, Deković, Meijer, & Engels, 2006). 특히 가정은 아동발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며, 부모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아동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물론 부모관련 요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요인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동발달과 관련된 공통위험요인의 인과적 역할을 밝히는데 핵심적 변인으로 간주된다(Wolff & Ollendick,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공통위험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는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야기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이은주, 2010; 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동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였다(백혜정, 황혜정, 2006).

부모감독은 청소년기 6년에 걸친 비행행동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arnes et al., 2006). 부모와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비행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 수준도 높았다(Barber, Olsen, & Shagle, 1994; Jacobson &

Crockett, 2000). 부모의 지도감독을 받지 못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이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으며(이주리, 2008), 부모의 부적절한 통제는 아동의 행동문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Buehler, 2006).

부모자녀 간 애착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억제하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였다(Buist, Deković, Meeus, & Aken, 2004). 부모자녀간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 및 공격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Marcus & Betzer, 1996; Raja, McGee, & Stanton, 1992), 우울 및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았다(Laible, Carlo, & Raffaelli, 2000; Raja et al., 1992). 종합하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의 인과성(causality)은 주로 부모에게 있었고, 아동 효과는 흔히 간과되었다. 대부분 부모-자녀 간 애착 및 지도 감독 등의 양육행동 변수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원인 변수로 취급되었으며, 부모에서 아동에 이르는 일방향적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다(Buehler, 2006; Reitz et al., 2006).

그런데 부모-아동의 관계는 오랜 기간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상호적 영향관계의 순환적 사이클 안에서 발달한다(Lollis & Kuczynski, 1997). 이에 따라 과연 부모-자녀 간 영향의 인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향적 부모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부모효과; parent effects)

아동 역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아동효과; child effect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erner, 2004; Sameroff & MacKenzie, 2003).

발달체계이론(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과 환경 간 역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Lerner, 2004). 같은 맥락에서 상호작용 모델(transactional model) 역시 아동의 발달과정을 아동과 아동이 속한 환경적 맥락 간의 지속적인 상호적 영향관계로 개념화하고 있다 (Sameroff & MacKenzie, 2003). 부모-자녀 관계와 내·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상호작용 모델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외현화 행동문제가 아동과 가정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영향의 산물임이 검증되고 있다(Buist et al., 2004; Eisenberg et al., 2005; Sheehan & Watson, 2008). 이것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모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 인과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아동효과나 부모효과만 지지하는 결과와 양방향의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가 내재화 문제인가 외현화 문제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Buist 등(2004)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다. 반면 Eisenberg 등(1999)의 연구에서는 비지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화 행

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역방향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부모효과만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Reitz 등(2006)의 경우 양육행동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부모효과는 없고 아동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인과성을 조사한 Albrecht 등(2007)에서도 아동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부모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을 다룬 연구 역시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Sheehan과 Watson (2008)은 모친의 훈육과 아동의 공격성 간 종단적인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Jang과 Smith(1997)에서도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비행 간에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었다. 반면, 부모감독과 아동의 비행의 관계에서 아동효과가 있지만 그 역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Kerr & Stattin, 2003). Stice와 Barrera(1995)의 종단연구에서 부모지지와 통제는 약물사용(substance use)과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었지만,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오직 아동효과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영향의 인과성을 조사한 Albrecht 등(2007)은 아동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부모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비록 비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효과만 고려해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효과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일부 연구에서 아동효과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현화 문제 간의 인과적 관계, 그리고 내·외현화 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내·외현화 문제 간의 양방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했지만, 대부분이 내재화 혹은 외현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두 행동문제를 동시에 종단적으로 다룬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모두 다룬 연구의 경우에도 대체로 별도의 분석을 통해 상호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e.g., 김재철, 최지영, 2010; Buist et al., 2004; Eisenberg et al., 1999). 그러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함께 나타나며 공동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Lilienfeld, 2003)에 기초해 볼 때 두 행동문제를 별도의 모델로 검증하기 보다는 하나의 모델에서 위험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한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앞에서 검토한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종단적 관계가 부모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효과 때문인지, 혹은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에 아동의 내·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를 일방향 보다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Reitz et al., 2006). 또한 비록 경험적 증거는 아직 충분하

지 않지만 이러한 두 영역의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Laible et al., 2000). 만약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그리고 각 행동문제와 부모행동 간에 상호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상호적 인과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행동문제가 공동발달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두 행동문제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행동은 두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에 작용하는 제 3의 변수, 또는 매개변수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 종단적 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비록 일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내·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해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가 모두 유의미할 가능성을 주장하였지만(Laible et al., 2000) 이렇게 가정된 양방향의 효과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들이 채택한 연구설계의 제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효과 및 부모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초기 문제행동 및 부모의 초기 양육행동을 통제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1회 측정된 횡단적 자료(e.g., Barber et al., 1994)나 부모효과만을 조사한 종단자료(e.g., Buehler, 2006)로는 효과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간주한 경우, 위험요인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으로 모델에 투입되는 경향을 보인다(e.g., 이은주, 2010). 이 경우 1회기에 측정된 부모 변인이 각 행동문제의 종단적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부모 요인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변변수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 수준의 위험요인 및 행동문제가 통제된 후에 각 행동문제와 위험요인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i.e., 부모의 양육행동)도 종단적으로 반복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수준을 통제된 후 각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회기 종단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조사하며, 그 관계에서 인과적 방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부모의 지도감독 및 부모-자녀간 애착)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부모효과; parent effects) 뿐만 아니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아동효과; child effects)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 영향의 방향은 어떠한가?(일방향 대 양방향 인과관계).

2.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

육행동(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종단적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부모효과 대 아동효과).

3.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조사된 초등학교 4학년 패널데이터로서 조사시작 시점에서 응답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4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이었다. 층화 다단계 집락표집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2개 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 수에 따라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학교 수가 결정되면 학교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 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학교를 추출한 다음 무작위로 1개 학급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아 1,524명(53.6%)과 여아 1,320명(46.4%)으로 총 2,844명이었다. 4년간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한 아동은 2,413명(84.8%)이었다.

2. 측정도구

내재화 행동문제

우울, 불안, 외로움, 자살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회기별 문항간 신뢰도는 각각 .80, .85, .85, 및 .84였다.

외현화 행동문제

공격적, 반사회적 비행 행동에 대한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무단결석, 가출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등 10가지 종류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난 1년간 경험유무(있다: 1, 없다: 0)를 합산하여 등간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일반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양육행동의 하위영역 중 중요한 두 가지로 부모의 지지(i.e., 애착, 관여)와 통제(i.e., 지도, 감독, 훈육)를 꼽는다(O'Connor,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지도 감독의 두 변인을 부모의 양육행동의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아동의 활동과 적

응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을 의미한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네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회기별 문항간 신뢰도는 각각 .80, .88, .88, 및 .89였다.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와 자녀간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의 여섯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회기별 문항간 신뢰도는 각각 .76, .87, .89, 및 .88이었다.

3. 연구모델의 검증

연구모델의 검증을 위해 자기회귀 패널모델에 기반한 구조방정식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측정모델의 검증과 구조모델의 검증을 구분하여 2단계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대안모델을 설정한 후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경쟁모델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을 취하였다. 모델검증을 위해 설정한 경쟁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측정모델의 검증

종단연구에서 반복변수를 잠재변수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확보되어야 한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요인계수와 자

자기회귀 계수에 대해 점진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포모델(nested models)을 설정하였다. 동일화 제약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기초모델(baseline model)을 우선 추정한 후 점진적으로 제약을 추가한 경쟁모델을 3단계에 걸쳐 비교하였다. 만약 동일화제약을 가한 후 모델적합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해당 추정치의 측정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측정모델 1은 모델비교를 위한 기저모델로서, 동일한 지표변수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할 경우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Bollen, 1989)에 기초하여 각 잠재변수별 지표변수의 측정오차 간 공변량을 허용하였다(우울_T와 우울_{T+1}, 불안_T와 불안_{T+1} 등). 측정모델 2에서는 각 잠재변수에 대한 동일한 지표변수의 요인계수(factor loadings)를 각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델 3에서는 각 잠재변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델 2에 대해 각 잠재변수들의 자기회귀 계수가 측정시점에 따라 동일하도록 제약을 추가하였다.

구조모델의 검증

구조모델은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 내재화 행동문제,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안정성(i.e., rank-order stability)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잠재변수 간 자기회귀 계수를 모두 추정하였다($INT_T \rightarrow INT_{T+1}$; $EXT_T \rightarrow EXT_{T+1}$; $PAR_T \rightarrow PAR_{T+1}$). 그리고 측정모델의 검증에서 각 잠재변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측

정 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상호적 관계를 검증할 때 구조계수 추정치가 부적절하게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측정회기 내 구조오차 간 공변량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ubio & Gillespie, 1995). 따라서 잠재변수들 간에 동일회기내 횡단적으로 상관되도록 하였다. 즉, 1회기의 외생잠재변수 간 공변량을 설정하였으며, 2, 3, 4회기의 경우 내생잠재변수들의 구조오차가 서로 상관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모델에서 각 잠재변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기회귀 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이 모델이 가장 간명한 기저모델(구조모델 0)로 사용되었다.

둘째, 내재화 행동문제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적 과정에 해당하는 교차지연 경로가 위계적으로 한 가지씩 추가되었다. 구조모델 1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지는 경로($INT_T \rightarrow EXT_{T+1}$)를 추가하였으며, 구조모델 2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지는 경로($PAR_T \rightarrow EXT_{T+1}$)를, 구조모델 3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INT_T \rightarrow PAR_{T+1}$)를 추가하였다.

셋째, 외현화 행동문제가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차지연 경로가 위계적으로 추가되었다. 구조모델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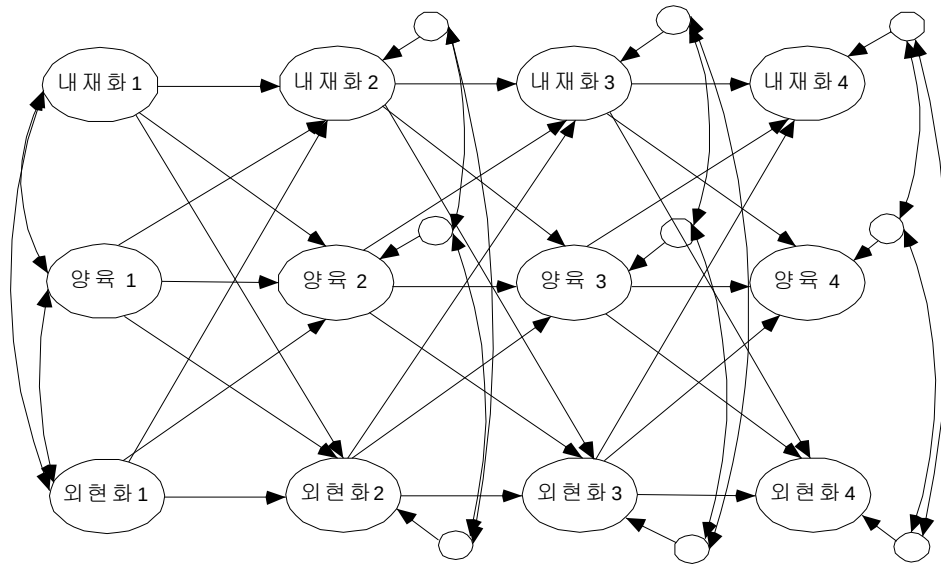


그림 1.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부모의 양육행동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구조모델

의 순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내재화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EXT_T \rightarrow INT_{T+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내재화 행동문제로 이어지는 경로($PAR_T \rightarrow INT_{T+1}$),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EXT_T \rightarrow PAR_{T+1}$)가 단계별로 추가되었다. 잠재변수 간 모든 자기회귀 경로 및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잠재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섯 가지의 경쟁적 구조모델이 설정되었다. 구조모델 0에서 구조모델 6까지 경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면서 자유도의 감소에 비해 χ^2 값의 증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경로를 모델에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델에서 각 잠재변수의 이전 수준이 통제되었으므로 교차지연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통해 한 변수가 1년 후의 다른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 잠재요인 간 교차지연 경로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두 영역의 행동문제 간 인과관계, 각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 인과관계, 두 영역의 행동문제 간 인과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모델적합도의 평가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값이 사용되었다. 적합한 모델은 χ^2 값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표본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검정력이 증가하면 χ^2 값은 유의미한 수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검증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함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rker -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각 모델의 전반적 적합성 지표로 사

용하였다.

모델 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비교하는 두 모델이 내포된(nested) 관계일 때 두 모델의 자유도 차이에서 χ^2 차이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방법이다(Bollen, 1989). χ^2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델 중에서 자유도가 큰 모델이 더 적합한 모델이 된다. 한편 표본수가 큰 경우 모델 적합도에 대한 χ^2 검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포된 모델의 χ^2 차이 검증에도 영향을 미친다(Tomarken & Waller, 2003). 따라서 χ^2 차이 검증의 과도한 검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내포된 모델 간 모델적합도 비교에 .01의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결측치 처리과정 없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가정하고 있지만,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ittle & Rubin, 1989). 예비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거나 선택적인 탈락(drop-out)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기에 걸친 표본유지율(retention)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88%) FIML의 통계적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AMOS 16.0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델의 검증

시변잠재요인(부모의 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초기 측정모델(측정 모델 1)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인은 4회에 걸친 각 측정회기마다 두 개의 지표변수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의 지도감독과 부모자녀 간 애착으로, 내재화 행동문제는 우울과 불안을 지표변수로 측정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정규분포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10개의 문항을 무작위로 두 개의 항목으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하였다. 잠재변수를 척도화하고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표변수의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였으며 두 번째 지표변수의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기 대응하는 지표변수의 측정오차가 각 회기에 걸쳐 상관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우울_T$ 와 $우울_{T+1}$ 의 측정오차 간 공변량, $불안_T$ 와 $불안_{T+1}$ 의 측정오차 간 공변량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초기 측정모델은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95)=991.62$, $p<.001$, CFI=.957, TLI=.934, NFI=.948, RMSEA=.038, 신뢰구간 CI₉₀=.036, .040.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회기에 걸쳐 요인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추가하였다(측정모델 2). 이러한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chi^2(204)=1,010.64$, $p<.001$, CFI=.957, TLI=.936, NFI=.947, RMSEA=.037, CI₉₀=.035, .040.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델적합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Delta\chi^2$

표 1. 측정모델의 적합도 비교 검증

측정모델	동일화 제약	χ^2	df	RMSEA	CI ₉₀	NFI	TLI	CFI
모델 1	기저모델	991.62	195	.038	.036, .040	.948	.934	.957
모델 2	요인적재량	1,010.64	204	.037	.035, .040	.947	.936	.957
모델 3	자기회귀경로	1,022.34	210	.037	.035, .039	.946	.938	.956

Note. 모든 χ^2 통계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19.02, $\Delta df=9$, $p>.01$. 따라서 각 지표변수들과 이들의 잠재요인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지표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측정회기에 걸쳐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부모의 양육행동: $\lambda=.63\sim.80$; 내재화 행동문제: $\lambda=.65\sim.96$; 외현화 행동문제: $\lambda=.53\sim.88$, all $p<.001$).

자기회귀계수(안정성 계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회기 간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제약이 추가되었다(측정모델 3). 이로 인해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chi^2(210)=1,022.34$, $p<.001$, CFI=.956, TLI=.938, NFI=.946, RMSEA=.037, CI₉₀=.035, .039.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델적합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Delta\chi^2=11.7$, $\Delta df=6$, $p>.05$. 따라서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부모의 양육행동의 자기회귀 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측정모델의 분석을 통해 요인계수 및 자기회귀적 안정성에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불변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측정모델이 양호하며 구조모델에서 가정한 계수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구조모델의 검증

부모의 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 상호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구조모델을 비교하였다. 표 2에 경쟁모델들의 적합도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요인내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통요인 간 자기회귀 경로가 포함된 기저모델(baseline model)을 추정하였다. 이 기초모델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8)=1,121.83$, $p<.001$, CFI=.952, TLI=.937, NFI=.941, RMSEA=.037, CI₉₀=.035, .039. 내재화 행동문제의 표준화 자기회귀계수(T₁~T₄: $\beta=.41, .43, .45$)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표준화 자기회귀계수(T₁~T₄: $\beta=.42, .30, .43$)가 모든 측정회기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표준화 자기회귀계수는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나타냈다(T₁~T₄: $\beta=.69, .76, .63$).

다음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재화 행동문제가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내재

표 2. 구조모델의 적합도 비교 검증

구조모델	교차지연경로	χ^2	df	$\Delta\chi^2(3)$	RMSEA	CI ₉₀	NFI	TLI	CFI
모델 0	기저모델	1,121.83	228	-			.941	.936	.952
모델 1	INT→EXT	1,113.01	225	8.82	.037	.035, .039	.941	.936	.952
모델 2	PAR→EXT	1,091.13	222	21.88	.037	.035, .039	.942	.937	.953
모델 3	INT→PAR	1,081.12	219	10.01	.037	.035, .039	.943	.937	.954
모델 4	EXT→INT	1,075.29	216	5.84	.037	.035, .040	.943	.936	.954
모델 5	PAR→INT	1,031.48	213	43.81	.037	.035, .039	.945	.938	.956
모델 6	EXT→PAR	1,022.34	210	9.15	.037	.035, .039	.946	.938	.956

Note. 모든 χ^2 통계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의 기초모델에서 단계적으로 잠재요인 간 인과적 방향에 대한 각각의 가설을 반영하는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된 경쟁모델을 비교 검증하였다.

가장 먼저 구조모델 1에서 내재화 행동문제가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내재화 행동문제가 1년 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모든 교차지연 경로를 추가하였다(INT_T→EXT_{T+1}). 이러한 경로의 추가로 인해 모델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chi^2(225) = 1,113.01$, $p < .001$, CFI=.952, TLI=.936, NFI=.941, RMSEA=.037, CI₉₀=.035, .039; $\Delta\chi^2 = 8.82$, $\Delta df=3$, $p < .05$. 각 경로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INT_{T3}에서 EXT_{T4}의 추정치가 유의미하였지만($\beta_{T3 \rightarrow T4} = .05$, $p < .05$),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_{T1 \rightarrow T2} = .035$, $\beta_{T2 \rightarrow T3} = .027$).

다음으로 구조모델 2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

의 양육행동이 1년 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모든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되었다(PAR_T→EXT_{T+1}). 예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로의 추가로 인해 모델 적합도의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chi^2(222) = 1,091.13$, $p < .001$, CFI=.953, TLI=.937, NFI=.942, RMSEA=.037, CI₉₀=.035, .039; $\Delta\chi^2(3) = 21.88$, $p < .001$.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beta_{T2 \rightarrow T3} = -.116$, $p < .001$; $\beta_{T1 \rightarrow T2}$ 및 $\beta_{T3 \rightarrow T4}$ 는 유의하지 않음.

이러한 교차지연 경로의 추가로 인해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외현화 행동문제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모델 3에서 내재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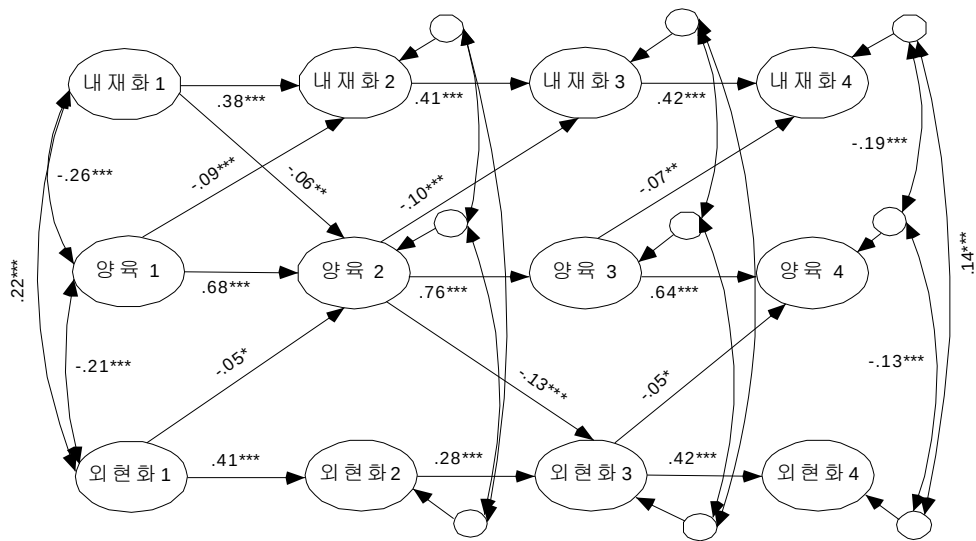
기 위해 내재화 행동문제가 1년 후의 부모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되었다($INT_T \rightarrow PAR_{T+1}$). χ^2 차이 검증결과 이 경로의 추가로 인해 모델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9)=1,081.12$, $p<.001$; $\Delta\chi^2(3)=10.01$, $p<.05$.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이후의 부모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아동효과)으로 나타났다; $\beta_{T1 \rightarrow T2}=-.07$, $p<.01$, $\beta_{T2 \rightarrow T3}$ 및 $\beta_{T3 \rightarrow T4}$ 는 유의하지 않음.

구조모델 4, 5, 6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먼저 구조모델 4에서 외현화 행동문제가 1년 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되었다($EXT_T \rightarrow INT_{T+1}$). 이러한 경로 추가로 인해 모델 적합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Delta\chi^2(3)=5.84$, $p>.05$. 예상과 달리 외현화 행동문제가 직접적

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구조모델 5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가 추가되었다($PAR_T \rightarrow INT_{T+1}$). 이 경로의 추가로 모델 적합도의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chi^2(213)=1,031.48$, $p<.001$; $\Delta\chi^2(3)=43.81$, $p<.001$.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1년 후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효과는 모든 측정회기에 걸쳐 유의미한 수준이었다($\beta_{T1 \rightarrow T2}=-.09$, $\beta_{T2 \rightarrow T3}=-.10$, $\beta_{T3 \rightarrow T4}=-.07$, all $ps<.01$).

구조모델 6에서 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이르는 교차지연 경로가 추가되었다($EXT_T \rightarrow$



*** $p<.001$, ** $p<.01$, * $p<.05$.

그림 2. 최종 적합 구조모델의 표준화 추정치

PAR_{T+1}). 이로 인해 모델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Delta\chi^2(3)=9.15$, $p<.05$.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효과를 지지하였다($\beta_{T1 \rightarrow T2}=-.05$, $p<.05$; $\beta_{T2 \rightarrow T3}=-.03$, ns; $\beta_{T3 \rightarrow T4}=-.05$, $ps<.05$).

그림 2에 최종 모델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그림의 간명성을 위해 잠재변수 간 횡단적 상관은 그림에서 일부 생략하였다. 모든 자기회귀 경로는 측정회기 간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교차지연 경로 중 일곱 개의 추정치가 측정회기 간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록 교차지연 경로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작았지만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는 각 잠재변인의 자기회귀적 예측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델에서 모든 경로가 동시에 추정되었으므로 각기 독립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Hussong, Hicks, Levy, & Curran, 2001).

종합하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상호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직접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외현화 행동문제는 직접적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측정회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종단적

인과관계는 부모효과뿐만 아니라 아동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의 4회기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내·외현화 행동문제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특히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상호적 영향, 각 영역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상호적 영향 등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자기회귀 계수가 모두 유의미하여서 4년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e.g., Sheehan & Watson, 2008)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전 시점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각각 이후 시점의 수준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세 잠재변인의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세 요인 간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한 바,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및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1년 후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1년 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이 내·외현화 행동 문제의 공동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두 행동문제 간 인과적 방향을 밝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Fergusson et al., 1996; Wolff & Ollendick,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한 영역의 행동문제가 다른 영역의 행동문제에 일방향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영역 간 양방향의 영향을 통해 공동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상호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더 이상 직접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 상호적 영향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은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이들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아동은 이후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세 잠재변수 간 교차지연효과가 모든 측정회기에 걸쳐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해석이 특정 발달단계에 한정되므로, 모든 발달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주로 부모효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행동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재화 행동문제와 양육행동 간에,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와 양육행동 간에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여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모효과 가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화한다는 아동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측정회기 내 부모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부적 관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Buist et al., 2004; Laible et al., 2000; Raja et al., 1992). 높은 친밀감이나 신뢰감과 같이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아동 청소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발달적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Shreeber, Hops, & Davis, 2001). Buehler(2006)의 연구에서도 모친의 심리적 건강(well-being)이 낮을수록, 부적절한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자녀간 애착이 낮을수록 이후 시점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부모효과).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 및 애착을 보고한 아동은 1년 후에 낮은 수준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높은 수

준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보인 아동일수록 1년 후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 교차지연 경로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1년 후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부모의 지도 감독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효과에 해당하는 경로가 모든 측정회기에 걸쳐 유의미한 반면, 아동효과의 경우 일부의 교차지연 경로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관계에서 아동효과보다는 부모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효과도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미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같이(Reitz et al., 2006; Sheehan & Watson, 2008; Stice & Barrera, 1995),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종단적 관계는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상호적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는 측정회기 내 횡단적 상관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 상호적 영향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자녀간 애착이 낮을수록 후속연도에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증가하였으며(부모효과), 동시에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

효과).

각 측정회기 내 부모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부적관계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Laible et al., 2000; Marcus & Betzer, 1996). Buist 등(2004)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부모 애착을 보고한 청소년들은 1년 후에 행동문제를 덜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규칙위반이나 과잉행동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낮은 수준의 부모의 지도감독 및 부모와의 애착이 1년 후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효과를 다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고 부정적 통제는 증가하였다(Kerr & Stattin, 2003; Stice & Barrera, 1995). 이에 대해 Buist 등(2004)은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의사소통과 신뢰의 부족, 소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다 비행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지도감독 및 부모자녀 간 애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4년간 매우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자기회귀계수는 이전 시점의 문제행동 수준이 이후 시점의 문제행동의 수준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둘째, 이러한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들은 1년

후 다른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여서 각 요인들 간 상호적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 셋째,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상호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두 행동문제 간 직접효과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매개효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내·외현화 행동문제가 공동발달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두 영역의 문제행동을 별도로 분석하기 보다는 한 모델에서 검증한 점, 각 영역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 상호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다룬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횡단적 연구의 경우 효과의 방향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데 제한적인 반면, 본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에 기초한 종단적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상호적 영향관계와 효과의 방향에 대한 가정을 검증할 수 있었다.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작용하는 부모효과와 아동효과를 모두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심리사회적, 행동적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단지 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아동은 일방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 간의 종단적인 상호적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아동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심리·행동적 위험에

처한 아동의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일방향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호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 역시 상호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두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은 상호적 직접효과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연구모델에 반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흔히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위험요인으로 가정되는 변인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의 초기 수준보다는 위험요인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i.e., 부모의 양육행동)도 시변 변인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동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매개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한 가지만 한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행동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수많은 변인들(e.g., 학업성취,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등)이 매개요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Masten et al., 2005). 후속연구를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상호적 인과관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탐색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외현화 행동문제 및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모두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 간 관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 및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라는 점(De Goede et al., 2009)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그 자체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 행동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내재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부모행동의 변화라기보다는 아동의 지각적 왜곡(perceptual distortion)으로 인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세심한 추가 검증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123-147.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3-202.
-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 Barber, B. K., Olsen,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nes, G. M., Hoffman, J. H., Welte, J. W.,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6).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on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1084-1104.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 Buehler, C. (2006). Parents and peers in relations to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9-124.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Aken, M. A. G.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27, 251-266.
- De Goede, I., Branje, S., & Meeus, W. (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75-88.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et,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Fergusson, D. M., Lynskey, M. T., & Horwood, L. J. (1996). Origins of comorbidity between conduct and affective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451-460.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 Hussong, A. M., Hicks, R. E., Levy, S. A., & Curran, P. J. (2001). Specifying the relations between affect and heavy alcohol use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3), 449-461.
- Jacobson, K. C. &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 - 97.
- Jang, S. J. & Smith, C. A. (1997). A test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ervision,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3), 307-336.
- Kerr, M. & Stattin, H. (2003). Parenting of adolescents: Action or reaction? In A.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21-152). Mahwah, NJ: Erlbaum.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erner, R. M. (2004). Diversity in individual -context relations as the basis for positive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A 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 for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 327-346.
- Lilienfeld, S. O. (2003). Comorbidity between and within childhoo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Reflections and dire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85-291.
- Little, R. J. A., & Rubin, D. B. (1989). The analysis of social science data with missing valu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8, 292-326.
- Lollis, S., & Kuczynski, L. (1997). Beyond one hand clapping: Seeing bidirectionality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4), 441-461.
- Marcus, R. F., & Betzer, P. D. S. (1996). Attachment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2),

- 229-248.
- Masten, A. S., Roisman, G. I., Long, J. D., Burt, K. B., Obradovic, J., Riley, J. R., Boelcke-Stennes, K., & Tellegen, A. (2005). Developmental Cascades: linking academic achieve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over 20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733-746.
- Mesman, J., Bongers, I. L., & Koot, H. M. (2001). Preschool developmental pathways to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679-689.
- O'Connor, T. G. (2002). Annotation: The 'effects' of parenting reconsidered: findings, challenge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555-572.
- Patterson, G. R., & Capaldi, D. M. (1990). A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In J. E. Rolf & A. S. Masten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41-16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eitz, E., Deković, M., Meijer, A. M., & Engels, R.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6(3), 272-295.
- Rubio, D. M., & Gillespie, D. F. (1995). Problems with error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4), 367-378.
- Sameroff, A. J., & MacKenzie, M. J. (2003). Research strategies for capturing transactional models of development: The limits of the possib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3), 613-640.
- Sheehan, M. J., & Watson, M. W. (200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maternal discipline techniques an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34(3), 245-255.
- Shreeber, L., Hops, H., & Davis, B. (2001). Family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19-35.
- Stice, E., & Barrera, M. Jr. (199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22-334.
- Tomarken, A. J., & Waller, N. G. (2003). Potential problems with "well fitting" mode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578-598.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201-220.

1차 원고접수 : 2011. 3. 28

수정원고접수 : 2011. 5. 17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Parenting as a mediator, predictor, and its consequences

Lee, Eunju

Dep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Most studies assessing the link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have focused primarily on parental behaviors as a cause and behavioral problems as an outcome. This study focused on both the parent effects and child effects and the mutual interplay between parenting (PAR) and internalizing (INT)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EXT). The present study also explored the longitudinal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INT and EXT, while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 in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NT and EX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cross-lagged panel model, was used to analyze four annual waves of data from 2,844 children taken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NT and EXT were concurrent and reciprocal during childhood. Both child effects and parent effects were supported: Changes in children's INT and EXT were influenced by a lack of parental attachment and supervision. PAR were also related to subsequent increases in INT and EXT. The results also support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 in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NT and EXT, implying that one domain of behavioral problems undermine PAR; in turn, undermined PAR leads to an increase in the other domain of behavioral problems during childhood.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use of developmental models of cascades and to improve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such child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parenting, child effect, parent effect